



ACE HIGH TECH CITY NEWS

January 1_2018 Vol.10

발행일: 2018년 1월 19일 / 발행인: 허광수 / 발행처: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운영위원회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전화: (02) 6309-6111

ADIEU 2017

무술년의

HAPPY

새해가

NEW

Contents

하이테크뉴스

신년사_허광수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운영위원회 회장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건물내 소방설비 안전관리

Hightech Company

하나투어 전문 판매 대리점 구일항공 (주)
허그앤그로우

Consulting-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솔루션 Part.1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Essy-나의 4동 베스트프렌드 아주머니들 _

Industry

우리의 작업 동료, 협동로봇
2017미래 신성장동력<곤충산업5> 곤충을 이용한 심리치료, 곤충매개치료

Hightech Reporter & Writer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 계약시 유의할 점
1인(가족)주주 회사도 주주총회라는 걸 해야 할까?
친구를 보내며...

Book-신경 고기의 기술 etc...

직장인들의 건강 프로젝트! - 겨울철 정전기 없애는 꿀Tip!!

Product -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입주사 & 제품소개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

입주를 축하합니다

1-117.8	에버그린스크린골프
B-107	다림
1-1608	(주)에이치미디어
1-605	(주)썬시크코스메틱
2-911	(주)디지털코라스
2-607	(주)메디즈
1-408	(주)이맥스글로벌
1-1502	(주)아인스에스엔씨
1-422.423	(주)미래금융서비스
1-106	뚜레쥬르
1-1001	(주)미래금융서비스
2-1006.7	(주)브이스테이션
1-1108	(주)다스카손해사정화재해상
2-303	알바이오텍(주)
B-108	송백
2-1302	쓰리알이앤씨(주)
1-1002	(주)지터원
2-1702	(주)보운이피씨
1-306	(주)네모연구소
B-307	(주)에스에스테크놀로지
2-506	(주)다스카손해사정화재해상
1-701	(주)휴니크
B-309호	(주)휴먼웨어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전문중개



ACE 공인중개사사무소

매매, 임대 매물 다량보유!!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전문 부동산입니다.

T.(02)6309-6309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1호(기업은행 건물1층)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부동산 업무는~!!

ACE 하이테크부동산

Tel. 02)6309-8949, 3439-2114

건물1동 104호(KB국민은행 옆, 행복한 약국 옆)

존경하는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입주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에이스하이테크시티에 입주한지 11년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는 구분 소유자 및 임직원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에 힘을 얻어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단지를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층 로비 미팅장소 설치, 비흡연자를 위한 행복쉼

터 10곳 설치, 지상 및 각동 옥상의 조경 개선, 주차장 및 상가 질서 바로잡기, 비상 계단 LED설치, 화장실 개선, 3동 사잇길 조경용 아치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유지 관리사업으로 기계, 전기공사, 건물 내 테크 공사 및 도장 공사, 간판보수 및 교체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공항버스 정류장(6008번) 유치를 추진 중이며 입주민의 편익 증진과 관리비 절감 등에 고민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운영위원회와 구분소유자 및 입주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 여러분!

2018년에는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했던 시국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경비업법 개정 등 관리현장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리 하이테크시티 구분소유자 여러분들의 기업이 굳건해 질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운영위원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믿음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쾌적한 공간 조성 및 적극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자산가치의 보존 및 상승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무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운영위원회 회장 허광수



불우이웃돕기성금기탁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입주사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회장 허광수)에서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겨울 최강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17년 12월 28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영등포구청에 기탁했다.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입주사분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된 성금은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 형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등포구 관내 이웃을 돕기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제11차 구분소유자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18년 3월 26일)

우리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2018년 3월 26일에 제11차 구분소유자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단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구분소유자 및 입주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물내 소방설비 안전관리의 강조



최근, 제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 내 피난시설인 복도, 계단등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도, 계단은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잠깐이면 관찮다란 생각에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차장내 소방설비인 방화셔터가 설치된 곳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화셔터는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방화셔터가 작동돼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커튼 역할

및 화재의 번짐을 막아야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가로막혀 설비가 제대로 동작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소방서에서도 불시점검, 민원신고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

관리 위반사항에는 ▲피난·방화시설(복도, 계단 등) 훼손 행위 ▲소방설비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하며, 적발된 대상은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행위자에게 부과된다. 이에, 업무지원센터에서도 소방설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입주세대에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개개인이 피난시설(복도, 계단)등 소방설비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업무지원센터 방재팀〉

에너지절약 실천 333운동



가정에서 3

-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여름 26~28℃, 겨울 18~20℃)



사무실에서 3

- 점심시간 조명등 끄기
-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끄기
- 엘리베이터 운행 줄이기



자동차에서 3

-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경제속도·경제운전 실천하기
(60~80km/h)

에·이·스·하·이·테·크·시·티·뉴·스

Company

하나투어 전문판매대리점 구일항공(주)

1등 여행사하나투어! 전세계 패키지여행, 항공권, 호텔, 워크샵, 골프 가족여행등 실시간예약



2007년 7월 30일 설립한 구일항공(주) 여행사는 에이스하이테크 시티 준공과 더불어 10여년을 2동 지하 108호에서 에이스하이테크 시티 내에 고객들과의 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인 여행사는 친절함이 기본으로서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함과 미소가 어우러져 편안하게 맞춤 상담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기업의 하나투어는 고객들과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패키지 여행, 골프여행, 기업단체워크샵, 뮤지컬, 연극 공연등 다양한 콘텐츠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일항공여행사는 본사의 모토를 토대로하여 여행업무 경력 20년 이상의 직원들이 고객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공권, 호텔예약, 전세기비사업무대행, 골프여행, 기업단체 워크샵, 신혼여행, 연극 공연관람권등을주요업무를 하고 있으며, 하나투어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문제도 해결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뢰할수 있는 여행사라는 믿음을 드리도록 하는게 저희 여행사의 변치않는 기본 마인드라 할수 있습니다.

설명 잘해주는 여행사로 좋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객님의 영원한 고객님의 성심성의껏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책임지는 여행 전문 코디네이터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드릴수 있는 구일항공여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여행사-구일항공(주)



* 2018년 1월 18일 부터 대한항공(KE), 델타항공(DL), 에어프랑스항공(AF), KLM 네덜란드항공(KL)을이용하여 출국하시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그앤그로우"

소중한 아이의 손빨기 손톱뜯기 습관 교정을 돕기 위해 탄생한 공감육아용품 브랜드 "허그앤그로우"를 소개합니다.

"책을 보거나 집중할 때 손톱을 뜯어요"
"심심할 때마다 손가락을 빨아요"

3세~8세의 자녀에게 이런 습관이 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의 습관을 볼 때마다 그만하라고 타이르고, 상처 나고 아프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을 하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고 겁을 줘도 쉽게 고쳐지지 않아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실전 육아의 벽은 언제나 높기만 하죠. 저희 회사 임직원 중 한 명도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던 부모였습니다. 자녀의 손빨기 습관을 고치기 위해 2년간 안 써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습관 교정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가장 마지막에 성공한 방법을 허그앤그로우 제품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놀면서 고치는 손빨기, 손톱뜯기"

허그앤그로우 브랜드의 첫 번째 제품인 유아동 네일 스티커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스티커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놀이 활동이 결합되어 "신나는 스티커 놀이"를 통해 아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습관을 줄여가는 습관 해결 용품입니다. 만 3세 이후 자아와 독립심이 발달하는 시기의 유아 자녀에게는 스스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놀이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아이 손톱에 성분이 안전하고 예쁜 캐릭터가 그려진 네일 스티커를 신나게 붙인 뒤에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동물 스티커 친구는 입 속이 짹짹해서 무섭대. 동물 친구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약속하자." 평소 습관적으로 입에 손을 넣었다면, 부모님과 함께 네일 스티커를 붙인 후에는 아이 스스로 손톱 친구들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스티커 친구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서서히 행동을 멈춥니다.

놀이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습관 교정에 성공하기까지는 꾸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매일 5분 이상 꾸준히, 부모님께서 함께 자녀와 손놀이를 해주시면 아이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정감을 주어 습관 교정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습관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함께 생활하는 부모님과 가족분들이 격려와 칭찬을 아낌없이 해 주시면, 아이 스스로 계속 칭찬 받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감도 얻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습관도 고치고, 즐거운 놀이도 하고"

저희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기에 제품에 사용한 원단과 수성 점착제, 색소 성분들 모두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개선법(CPSIA) 아동용품 안전검사를 통과할 만큼 엄격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엄선해 허그앤그로우를 제작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는 자녀 습관 교정 용도 외에도 안심하고 즐기는 네일아트 놀이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모분들이 사랑하는 조카를 떠올리며 선물로 많이들 준비하시더라고요. 자녀의 손 습관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혹은 조카가 손톱에 발라달라고 조르는데 성인용 메니큐어 사용하기에 걱정되셨다면, 간편하고 안전한 저희 허그앤그로우 제품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4-402호 (허그앤그로우) 패밀리엔트 강영임>

에·이·스·하·이·테·크·시·티·뉴·스

Consulting

Leadership article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솔루션 Part.1: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빅데이터 등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사회, 경제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변화를 받아들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

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꼭 변화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동안처럼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장난감 유통 업체이니 토이저러스를 아시나요?

토이저러스는 미국은 물론 세계 최대의 장난감 유통업체로 직원만 6만 2천여명, 연 매출 115억 달러(약 13조원)의 전 세계 37개국에 1,500여 매장을 거느린 일명 장난감 왕국이라 불리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 토이저러스는 막대한 부채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장난감 왕국은 왜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더 이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아서? 이걸 일부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이저러스가 몰락한 이유는 바로 변화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몰락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확인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유통 환경과 소비자의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았습니

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더 편하게 구매하는데 익숙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이저러스는 끝까지 오프라인 매장에 전략을 집중하였

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경쟁자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토이저러스의 경쟁자는 누구 말하는 것일까요? 유통 업체의 강자 아마존? 다른 장난감 유통 업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며 놀이를 즐깁니다. 토이저러스에서 판매하는 장난감에 대한 흥미는 이전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

지만 이러한 변화를 무시한 토이저러스는 지속적인 매출 하락을 겪게 되고, 결국 4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얻게 되어 결국은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디지털로 인해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맞춰 기업도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질 수 밖에 없

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각의 업종, 채널 등이 서로 융합해 각자 다른 산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융합을 위해서는 기업은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기업의 내부 인원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외부의 변화에 따라 기업 내부의 변화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업 내부의 변화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수 합병, 조직 개편, 전략 변경, 경영진 교체 등을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부서 이동, 새로운 상사, 새로운 부하직원, 완전히 새로운 팀, 새로운 프로젝트 등이 될 수 있

겠

조. 이러한 변화를 포럼에서는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러한 전환은 기업에서 일하는 조직원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전환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실상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기업이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을 실행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길이 변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달리는 자동차의 경우, 가속도가 붙어 점점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생기는 커브 길에선 어떻게 될까요? 커브를 돌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는 느려지고, 이 느려진 상태에서 다시 속도를 올리기가 지시

간이 걸립니다. 이 자동차가 기업이고 커브길이 전환이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생존을 위해 전환을 시도했을 때, 기업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

조. 외부 변화에 대응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기업은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런 기업은 결국 도태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토이저러스처럼요.

기업이 성공하려면 전환 시에 느려진 속도를 최대한 빨리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속도를 다른 기업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것이 성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

죠. 이 전략 실행 속도를 빨리 올린다는 것은 기업이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적응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경쟁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

입니다. 그렇다면 전략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략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소가 중요

합니다.

명확성(Clarity) : 변화 속에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변화 속에서도 비즈니스의 환경에 따라 관리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상사와 팀원들이 모두 명확한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공유한다.

통합성(Integrity) :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팀 목표 달성을 위해 협업해야 하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민첩성(Agility) :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자신의 팀과 역량을 향상시킨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자신과 팀원들의 의지와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위의 요소들에 집중하여 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명확성, 통합성, 민첩성에 집중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대비하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소식지에 실릴 2부에서는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2호 (주)한국포럼 (www.forumkorea.com)>

..... H I G H T E C H _ E S S Y

나의 4동 베스트프렌드 아주머니들 ..



아침 6시 10분 집을 나와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문래역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오늘도 7시 3

분.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출근시간동안 묵언수행을 하고 회사가 있는 에이스하이테크 시티 4동에 도착하면 나의 묵언수행은 자동으로 끝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동 1층 로비에서 매일 만나는 아주머니. 아주머니와 나의 인연은 벌써 6년째. 굳어있던 내 입은 한마디의 인사로 풀어지고 경직된 얼굴은 미소로 부드러워진다.

5층으로 올라와 회사 문 열고 들어가면 이른 출근시간이라 맞아주는 이 하나 없지만 미소 띤 내 얼굴은 변함

이 없다. 조금 있으면 내 미소를 더 크게 만들어줄 분을 만나야 할 때문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 이분은 나의 베스트프렌드다.

얼굴 보자마자 바로 안녕하세요를 해주는 5층 전담 아주머니. 오늘도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티하나 없이 청량하기 그지없다. 매일 같이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목소리인데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목소리가 또 있을까.

“오늘은 어제보다 추운 것 같죠?”

“네. 뉴스에서 그러는데 영하 7도래요. 아줌마 추워서 어떡해요.”

“움직이니까 괜찮아요. 내일도 춥다고 그러죠?”

“네. 뭘 겨울이니 추울 날만 있는거죠. 그래도 옛날보단 낫잖아요.”

“맞아요.”

겨울 들어 요즘 아주머니와 나의 수다는 일기예보다. 정치이야기도 하고 대형 연예인 사건사고 이야기도 하고 여름휴가부터 김장철에 명절이야기, 아줌마와 나의 수다는 길진 않지만 매년 거르지 않고 쓰는 일기다.

아는 사람 많고 친구가 많으면 뭐할까.

휴대폰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 뭐할까.

상대방이 아픈지, 웃고 있는지, 아니면 기분 나쁜 상태인지 알수가 없지 않은가.

매일 만나는 4동의 아주머니들은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 친구들보다 더 가까운 나의 베스트프렌드다.

아주머니들보다 연배는 어린 나지만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나이 직업 다르지만 아주머니들과 내가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주머니들과 난 당당한 커리어우먼이라는 것이다.

4동의 아침을 시끄럽게 때론 웃음으로 여는 커리어우먼들.

이 분들 때문에 나의 출근은 내년에도 어김없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다.

감사합니다.

<4-504호 (블루마운틴)전은아>

에·이·스·하·이·테·크·시·티·뉴·스

4차산업현장리뷰-Industry

우리의 작업 동료, 협동로봇

우리의 작업 동료, 협동로봇

로봇은 불평불만 없이 24시간 일하고 주어진 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한다. 인건비 상승으로 노동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세계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로봇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최근 로봇 업계의 화두는 단연 협동로봇이다. 작업자의 비효율적 노동을 분담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협동로봇은 작고 쉽고 유연한 특성 덕에 중소기업 자동화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로봇이 도입된 공장의 생산설비를 상상해보면 사람마다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로봇 주위에 굳게 쳐진 안전펜스는 빼놓을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산업재해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로봇 자체의 중량도 상당한데다가 고속으로 움직인다 보니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능이 검증된 방호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함을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공장에서도 방호 장치는 필수적이고, 움직이는 로봇 옆에 작업자가 접근하는 일도 없다. 안전의식이 부족한 몇몇 작업장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최근 몇몇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공장에서 낯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로봇이 작업자와 나란히 서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이 작업자 옆에서 저 작업자 옆으로 옮겨 다니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이 공장과 학영화 같은 일은 '협동로봇(Collaborate robot)'의 등장으로 가능해졌다.

안전한 협동로봇

협동로봇은 이름 그대로 사람과 '협동'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인간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로봇이다. 로봇 제조사마다 협동 로봇을 정의하는 기준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위]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 M1013, [아래] 한화테크윈의 협동로봇 HCR-5

우선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작업자 바로 옆에서 일하는 협동로봇이 두려운 존재가 된다면 작업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물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해 작업자가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안전'은 협동로봇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기존 산업용 로봇은 일정 부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협동로봇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형 경량 설계가 되어 있고 저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자와 충돌하더라도 충격이 크지 않다. 그 때문에 별도의 안전펜스나 방호 장치 없이 생산 설비에, 작업자 바로 옆자리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다.

사람과 공존하는 협동로봇

로봇 설치·이동 및 프로그래밍이 쉬워 다양한 작업에 활용이 가능한 것 역시 특징이다.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에서도 적재적소에서 작업자들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립 작업을 담당하는 A 직원의 업무량이 많을 때에는 A의 업무를 분담하고, 포장 작업을 하는 B 직원의 업무량이 많을 때는 B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한 대의 로봇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작업자가 손으로 직접 로봇을 움직여 원하는 동작을 설정하는 방식과 같이 간단한 프로그래밍은 로봇 활용의 장벽을 대폭 낮춰준다.

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는 지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이에 공장 자동화는 진작부터 진행되고 있고 제조업용 로봇 도입도 앞서 말한 대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지만, 특히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비싸고 다루기 어렵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기존의 제조업용 로봇을 현장에 도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협동로봇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 로봇 시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강력한 모터를 달고 갈수록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2020년까지 협동로봇 시장이 3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추측하고 있다.

<3-206호 엠에프지 아이앤씨>

2018
미래
신성장동력

<곤충산업>



5부, 곤충을 이용한 심리치료, 곤충매개치료

산업의 고도화는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치열한 경쟁과 갈등 속에 정신적 공황 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힐링문화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다양하고 다각화된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근래에 이슈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선정 미래직업에까지 선정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동물매개치유이다.

동물매개치유는 타인이나 주변환경요소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거나,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같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물을 활용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게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대인기피증, 서번트증후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등 많은 질환 치유에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되는 동물은 전세계적으로 개, 고양이, 말, 새, 돌고래, 토끼, 기니피그, 고슴도치 등이 심리상담 도우미 동물로 활용되고 있다.

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은 곤충이다. 곤충은 동물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곤충을 이용한 동물매개치료는 사춘기 이전 아동과 노인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왕귀뚜라미 기르기가 노인들의 우울증과 인지 기능 개선 등을 통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정신심리검사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확인하고 이를 관련 저명학술지에 게재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요양원에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 방울벌레 키트가 방마다 배치되어 스피커에서 나오는 곤충소리가 아닌 실제 곤충 소리를 통하여 정서 및 치매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또한 현대 아이들은 TV, 스마트폰, 게임 등 미디어의 침투가 급격히 높아진 탓에 다양한 발달장애

문제가 이슈되고 있다. 사춘기 이전 아동인 유아~초등저학년 학생은 곤충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다. 이들에게 애완곤충의 대표적인 장수풍뎅이 및 사슴벌레를 키운다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되고 강아지 및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인 효과, 그리고 더 나아가 곤충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TV, 스마트폰 등 미디어 등과 멀어지게 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민요인 신고산타령의 3절 가사를 보면 “귀뚜라미 슬피 울어 남은 간장 다 썩어네”라는 가사가 나온다. 과거 우리의 정서를 대변했던 곤충이었으며 중국영화 마지막 황제의 엔딩신에서는 자금성에서 귀뚜라미를 키웠던 마지막 황제 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고단한 궁궐 생활을 하는 공녀들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고향을 생각하는 수단으로 귀뚜라미를 길렀다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곤충은 그 자체로 심리치료에 활용이 가능한 동물이다.

서울시 곤충산업연구회에서는 곤충을 이용해 유아, 초등, 중고등, 성인, 노인 등 전 연령층뿐 아니라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치유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 시키고자 2018년을 곤충매개치유 원년으로 삼고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효과 좋은 치료의 대안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4-405호 모두의곤충(www.modooon.com) 02)512-0191>

다음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소식지에 실릴 미래 신성장동력 곤충산업 6부에서는 식물의 번식을 도와주는 화분매개곤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귀뚜라미 (출처: 농촌진흥청)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 계약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번에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408호에 입주하게 된 위길복 변호사입니다.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 계약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계약이라고 부르는 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의미하는데 별도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한 채권적 전세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적 전세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줄여서 '주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을 두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법한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가령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부부 모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유물의 임대행위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되고(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978 판결) 50% 지분은 지분의반수이지 과반수가 아니므로 동일한 지분 비율로 임대인 부부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권자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과반수지분권자가 아닌 소수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과반수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대항력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대항력이 인정되면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들고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는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점유의 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

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발생할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 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나 가압류 등의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그에 기한 경매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라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근저당권자처럼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항력 요건에 덧붙여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두 요건을 갖춘 날, 즉 늦은 날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4.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라 함은 임대차보증금이 기준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해당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여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려면 먼저 보증금액이 최우선변제권 적용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 대상과 금액은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주택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상가의 경우는 월차임도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지만 주택의 경우는 순수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5. 결어

전(월)세보증금은 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재산 중의 하나인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갖추어 계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1408호 (법률사무소 소명)변호사 위길복>

1인(가족)주주 회사도 주주총회라는 걸 해야 할까?

주주총회는 '법(상법)'으로 정한 절차이지만 투자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주주총회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해 왔어도 그 차이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위배 여부를 다루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법과 상관없을 것 같은 세법 때문에 주주총회를 하지 않은 것이 종종 문제가 된다. 회사의 오프라인 세금과 관련해 한번쯤 생각해 봤을 퇴직금증액, 차등배당,



자사주취득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로 열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임원의 보수(상여금포함) 역시도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정이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를 수임하면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서류들 중 하나가 정관, 주주회의록 등 상법관련 서류들이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가 돼서 급하게 만들거나 수정하지 말고 곧 다가오는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총회를 열어보자. 법인설립 후 지금까지 보관만 돼온 낡은 정관 내용도 변경하고, 퇴직금과 상여금지급규정도 정비하고 하는 것은 절세도 하고 동시에 세무조사도 대비하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1-319호 (정&정세무 정민성세무사)정민성>

친구를 보내며...

넌 언제 한번 따스한 말 한마디 하는 친구였느냐?

더듬거리는 말 한마디 마다 어눌함이 묻어나

어디에서 인정받는 등무였느냐?

깊은 병에 힘들어 말하기 어려운 미소에도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표정이라 생각했다.

친구야~ 그렇게 마감 짓고 넌 편하느냐?

남아있는 우리들은 살았지 못했던

너에 대한 애정에 이렇게 죄책 하는데...

지홍아~~~

니가 원했던 정답던 세상은 우리들에게

허용되지 않던 답답한 세계였느냐?

정다운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낸 우리들에게 옥해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히 잠드소서...

2017년 12월에

50년지기 친구가

<1-705호 (주)빅트랜스 정태상>

에·이·스·하·이·테·크·시·티·뉴·스

Culture Health

B O O K

신경 꺾기의 기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마크 맨슨 지음 | 한재호 역 | 갤러온

“무한 긍정만을 강요하던 기존의 자기계발서는 잊어라!”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법

기회와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성공 신화가 미디어를 점령하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로를 비교하며 버킷리스트를 채워나간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의식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우리를 짓누른다. 더 노력하고, 더 서두르고, 더 성공해야만 훌륭한 삶이라는 공식이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모든 일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며 30대 대부분을 보냈고, 스티브 잡스는 콘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대단해 보이는 일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이다.

같은 맥락에서 마크 맨슨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보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짜 중요한 것에 신경 쓰려면 하찮은 것들에 적당히 신경 끌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지만, 외욕 과잉의 세상에서 진짜 문제는 주로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경을 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마크가 말하는 신경 꺾기란 무심함과 다르다. 먼저 나 자신만 특별히 불행하다는 착각이나 남보다 특출나야 한다는 일종의 ‘허세’를 버리고,

인생에는 원래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 낼 혜안을 갖게 된다. 누구나 경험해야 할 삶의 문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키가 바로 신경 꺾기의 기술인 셈이다.



파리의 아파트

기욤 뮈소 지음 | 양영란 옮김 | 밝은세상

사랑과 감동의 마에스트로 기욤 뮈소의 중독적인 스릴러!

기욤 뮈소의 본격 스릴러 『파리의 아파트』. 죽기 직전까지 납치된 아들의 생존을 확신하고 찾아 헤메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천재화가 손 로렌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그림 석 점과 납치된 아들을 찾아 나선 전직 형사 매들린과 극작가 가스파르가 비밀의 열쇠를 풀어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천재 화가의 신비스런 창작 세계, 예술가들의 고뇌와 열정, 납치된 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전직 형사 매들린과 극작가 가스파르는 임대 회사의 실수로 파리의 아파트에서 원치 않는 동거를 시작한다. 천재화가 손 로렌츠가 살았던 집으로 여전히 그의 숨결과 자취가 배어 있는 그 집의 법적 상속인은 그들에게 화가의 납치된 아들과 사망 직전에 그린 그림 석 점이 사라진 사실을 이야기한다. 매들린과 가스파르는 의기투합해 화가의 그림과 아들을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 손의 비밀을 파헤쳐 가는 동안 두 사람은 눈앞으로 다가서는 연쇄살인마의 그림자와 대면하게 되는데…….

미중전쟁

김진명 지음 | 쌤앤파커스

[무궁화꽃...] [싸드]는 이 책의 예고편이었다!

신기(神氣)의 작가 김진명, 25년 작가 인생을 건 필생의 대작!

거침없는 문제제기로 우리 사회의 핫 이슈를 정조준해온 작가 김진명이 소름 끼치는 통찰과 충격적 예언을 담은 대작을 들고 왔다. 그의 신작 [미중전쟁] (전2권)은 밀리언셀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싸드]의 종결판으로, 25년 작가 인생을 걸고 쓴 충격적인 팩트 소설이다.

이 책은 북핵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패권의 항배, 미중러일의 야심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에 대입해 '날'이 개발된다. 기존의 어떤 탐사보도나 보고서에도 나온 적 없는 김진명 작가만의 신기(神氣)에 가까운 정세 분석은 픽션이지만 논픽션보다 더 치밀하고 리얼하다.

지금 한반도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러일 4강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트럼프의 패권주의, 시진핑의 팽창주의, 푸틴의 열강 복귀, 아베의 군국주의 부활 등으로 이미 세계열강의 격전지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며 거듭 도발해오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그들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어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만에 하나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트럼프는 어떻게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아비규환의 한반도에서 한반도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은 더 늦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작가 김진명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을 지금 공개한다!



H e a l t h

직장인들의 건강 프로젝트!



+- 겨울철 정전기 없애는 꿀Tip!! +-

겨울철만 되면 항상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전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놀라면서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다. 정전기가 흐르지 않고 모여있는 전기를 말하는데, 우리 몸에 머물러 있다가 전기가 통하는 물체가 있으면 전기가 방전되면서 짧은 충격을 주게 된다.

정전기의 원인은 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습도가 낮을수록 자주 발생해서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된다. 느끼는 정도는 남녀가 다르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4000볼트가 넘었을 때, 여자는 2500볼트만 되어도 정전기를 느낀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비교적 더 많이 발생한다. 나이 먹는 것도 굉장히 서러운데 정전기까지 나이와 연관이 있다니..!

참고로 몸이 습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비교적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남은 추운 겨울철 정전기를 없애는 효과적인 꿀팁 6가지를 알아보자.

1. 머리감을때

머리 감을 때는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로 감는 게 좋다고 하는데 겨울철에 이게 가능할리가 없다. 하지만 샴푸로 머리를 감은 후에는 린스나 트리트먼트 제품을 이용하면 모발에 보호막을 형성해 정전기 방지에 도움이 된다. 머리카락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 건조 시키는 게 좋고 다 마르면 헤어로션을 발라 모발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



자. 빗을 사용할 때는 사용전 물을 묻히거나 헤어오일을 발라주는 것이 좋다. 정전기가 너무 심하면 나무나 고무소재의 빗을 사용해 보자.

2.문고리 만질때

평상시 손에 보습제를 자주 바르고 문고리를 잡기전 손바닥에 입김을 불어 습기를 만들어 주면 정전기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손톱을 문고리에 3초정도 댄 후 잡으면 정전기를 없앨 수 있으니 속지해 두자. 손톱에는 신경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전기가 생기더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3.자동차 문 열때

자동차의 문을 열 때는 동전이나 열쇠 끝을 이용해 차체를 톡톡 건드려 보자. 이렇게 하면 정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으며, 차에서 내릴 때에는 차 문을 열고 한쪽 손으로 차의 문을 잡으면서 발을 땅에 내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옷과 시트커버가 마찰하면서 생겨나는 정전기를 서서히 흘려보낼 수 있다.



4.옷 벗을때

옷을 벗을 때는 양말만 먼저 벗어도 정전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맨발로 다니면 몸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불균형이 발생해 전

기를 땅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옷을 벗어둘 때는 털스웨터 같은 섬유질의 옷은 나란히 걸어두지 말고 중간에 순면 소재의 옷을 걸어두자. 이렇게 하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으며, 정전기가 심하게 일어나는 옷은 화장실에 걸어두면 습기가 생겨 정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외출 중에 치마나 바지에 정전기가 생긴다면 로션이나 크림을 다리 혹은 스타킹에 발라주면 효과가 있다. 또한 치마 끝에 클립을 하나 꽂아두어도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다.

5.식초로 TV정전기 없애는 법

식초는 TV화면의 정전기를 많이 없앨 수 있다. TV는 가전제품 중 정전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물품이다. 식초를 살짝 묻힌 천으로 화면을 닦아주면 TV에 먼지가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6.셀프주유소에서

셀프 주유소에는 주유기에 정전기방지 패드가 붙어 있다. 패드에 손을 갖다대면 몸 안에 쌓여있던 정전기가 대부분 빠져나가게 되는데, 가끔 정전기로 인해 주유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니, 셀프 주유소 이용시에는 반드시 정전기 방지 패드를 터치하자.

<참고자료>

http://nolj.tistory.com

http://v.media.daum.net/v/2015~

<1-6층 딜러(닉네임)>

에·이·스·하·이·테·크·시·티·뉴·스

Product

에이스하이테크 입주사의 제품과 회사소개를 합니다.

기사 및 원고 모집

접수처: 업무지원센터 6309-6114
게재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생명의 향기를 소중히 전하는- 감성플라워

정원플라워

전국, 전세계 꽃배달서비스(연중무휴), 예약맞춤 우대합니다.

010-5893-0335

Tel.(02)2671-0335 Fax.(02)2671-0336

www.정원플라워.com



신장개업

한번 맛보면 중독되는 우리만의 직화!!

송백직화구이

진짜 불맛을 경험해보세요.(제육, 숯불, 오삼, 낙삼, 석어...)

B108호

T.(02)2632-3868

하나투어가 여행을 만들면 다릅니다
믿고 떠날수 있는 진짜 여행정보를 만나보세요!

HNT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구일항공(주)

(에이스하이테크시티 B동 108-1호)

Tel. (02)725-9191

E-mail, bluesky7895@naver.com
www.nineone.co.kr

카다로그, 브로셔, 인쇄물 디자인(PRINT DESIGN)

브랜드 디자인(BRAND DESIGN)

로고 디자인 (LOGO DESIGN)

패키지 디자인(PACKAGE DESIGN)

싸인디자인(Sign Design)

디자인퓨처(3동 609호)

02-2679-6343, 010-5323-1441

작지만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松月

송월타월 · 우산

영등포문래점(에이스하이테크시티)

재고 수건 할인판매

~~4~6,000원~~ > 2,000~2,500원

부담 없는 비용에 고품질의 생활용품과 다양한 답례품으로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입주사 임직원 주문시 10%할인 제공

Tel. 02)877-0332, 0334(3동 102호)